

사회복지시설 탐방 ⑩ 포천시곰두리두레마을 원장 정미숙

“장애인의 自立을 도와주고 싶어요”

치료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응훈련 강화



장애인주간보호 및 공동생활 가정, 치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포천시 곰두리두레마을(원인 정미숙 원장).

곰두리 두레마을(원장 정미숙)은 최초 장애인 주간보호 및 공동생활 가정을 지향해 지난해 10월 27일 개소한 장애인 복지 시설이다. 곰두리 두레마을(이하 두레마을)은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위치한 시설로 포천시 시설설립주체가 돼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 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두레마을은 정미숙 원장을 포함해 공동 생활가정 2명, 치료사5명, 기사1명, 식당직원 1명이 총1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건물은 연면적 104평으로 ▶주간보호시설 83평 ▶공동생활가정 21평으로 구성돼 있다. 정미숙(38·원인사진) 원장은 “두레마을

의 최초 설립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었다”며 “현재는 이런 목적을 유지한 채 한층 더해 치료프로그램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최초 주간보호시설은 18세 이하 17명을 수용했으나 치료프로그램을 더해 현재는 30여명이 장애아동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치료프로그램에 속한 장애아동은 주로 지적장애 등으로 1인당 40분씩 교육을 받고 귀가한다. 두레마을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 원장은 “매일 1건정도의 상담을 받고 있다”며 “특히 7세이하 아동의 상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치료프로그램에 들어오려면 장애 진단을 받아야만 하지만 상담수에 비해 부모들이 장애를 꺼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포천시에서 추진하게 될 복지관에 특수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뜻밖에도 “공부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그럴 때면 참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한데, 어디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부를 하기에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은 아들도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늦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들은 이미 다른 아이와 경쟁이 될 수 없다는 계산을 한 것이고 해보야 될 것이 뻔하기에 공부 역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공부 이외의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특기와 적성을 살린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공부만 포기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뒤쳐졌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포천심터

학문이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뜻밖에도 “공부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그럴 때면 참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한데, 어디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부를 하기에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은 아들도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늦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들은 이미 다른 아이와 경쟁이 될 수 없다는 계산을 한 것이고 해보야 될 것이 뻔하기에 공부 역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공부 이외의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특기와 적성을 살린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공부만 포기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뒤쳐졌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석혜승  
보통장사주지

좌절하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문의 목적을 좁디 좁은 데 학문에 맞출 때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학문이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탐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특정 과목이 되었건 전 과목이 되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무언가에 몰두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문의 길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의 길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세와 열정이 바탕이 된다면 어디서든 눈을 돌려 특기와 적성을 살린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공부만 포기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뒤쳐졌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필자연락처 031-542-0032

사건/사고

이동면 민가에 포탄 파편 떨어져

지난 13일 오전 11시10분경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김모씨(61) 집에 인근 군(軍) 사격훈련장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파편이 떨어졌다.

파편은 지름 10cm, 두께 1.5cm로 박씨 집 보일러실 지붕(구멍 15~20cm)을 뚫고 떨어졌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씨의 아내 박모씨는 “마당에서

장을 담고 있는데 ‘뽕’하는 소리가 나 보일러실로 가 보니 파편이 떨어져 있었다”며 “인근 측사 지붕 위에도 파편으로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집은 군이 사격연습을 하는 목표물 탄착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700~800여m, 후방에 위치해 있다.

불법 묘역조성 40대 최모씨 구속

포천시는 13일 산림을 불법 형질 변경해 묘지를 만든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최모(48.문수업)씨를 구속했다.

시에 따르면 최씨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입야 1천400여평

을 묘역으로 조성한 뒤 김모(50)씨 등 22명에게 평당 2만~30만원씩 판 혐의다.

최씨는 사법경찰관을 갖고 있는 포천시 산림직 공무원에게 적법해 구속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군부대 사격장서 불, 임야 2ha 태워

지난 16일 오전 11시경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있는 군 부대 사격장에서 박격포 사격 연습 도중 불이 나 사격장 근처 임야 2헥타르

를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소방 헬리콥터 5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려움을 겪었다.

임금체불 불만, 승용차로 경찰서 들이받아

포천경찰서는 17일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로 경찰서구대 출입문을 들이받은 이모씨(45.건설 현장 소장)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24분 경 포천시 신음동 포천지구대 앞 노상에서 자신의 티코 승용차로 지구대 출입문을 들이받아 강화유리를 파손한 데 이어 난동을 부린 혐의다.

이씨는 또 이날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축서휴게소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1%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포천지구대까지 약 15km를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모 건축현장에서 임금 250여만원을 받지 못하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왔기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이날 포천시 소흘읍

부모님 전상서 ‘어떠커니’ 出刊 화제

포천출신 국방부 부이사관 박용구 박사



박용구 박사  
국방부 부이사관

『어떠커니, 어떠커니! 너희를 두고 먼지가니 어떠커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남기신 어머니의 서러운 육성은 자신의 것을 다 퍼주었어

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국방부 부이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용구(사진)박사다. 박용구 박사는 ‘어떠커니’(사진)란 책을 통해 우리의 과거와 변화된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전 재경포천시민회장이며 인천교대 총장을 지낸 정동화 박사는 서평을 통해 “그동안 자서전이나 회고록 등을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지극한 효성이 물줄기를 이루는 책을 보지 못했다”며 “가히 효성의 결정체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문용민 KBS PD는 “박용구씨의 작품은 자신 개인의 가족사라기보다 우리 한국인의 근본과 생활사를 알 수 있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이다. 조금은 거창한 비유 같지만 끈 끈한 가족애와 모성을 기반으로 한 지붕 밑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생활사 박물관 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며 책머리에 밝혀두고 있다.

박용구 박사는 ‘어떠커니’ 본문에서 “어머니, 제게 어머니란 존재가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다음 생애엔 제가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받은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가 되어 전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도 어머니께 차마 전하지 못했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했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박용구 박사는 명지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 대전대학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국방대학교 안정보장대학원에 재학중이며 국방부 부이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가족간의 대화마저 부족해진 이 시대에 ‘꽃’의 침묵을 일깨워주는 가슴 따뜻한 책이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어떠커니’ 표지.)

“얼씨구 문화포천 절씨구 한국축제” “우리멋 한마당 포천에서 세계로”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엠블럼과 주제어 선정

오는 10월2일부터 4일까지 경기 포천시에서 개최되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공식 엠블럼과 주제어가 선정·발표됐다.

지난달 실시한 공모 결과 엠블럼 부문에서 18건, 주제어 부문에서 106건의 작품이 각각 접수, 이날 엠블럼 한 작품과 주제어 두 작품이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엠블럼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포천을 춤추는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했으며 노랑과 초록은 자연을, 파랑은 물과 하늘을, 빨강은 태양을, 그리고 붓 터치된 민속예술을 상징하고 있다.

주제어의 경우 “얼씨구 문화포천 절씨구 한국축제”와 “우리멋 한마당 포천에서 세계로”가 결정됐다.

이날 선정된 공식 엠블럼과 주제어는 한국민속예술축제 기간에 하루 앞서 10월1일 열릴 예정인 제12



오는 10월2일부터 4일까지 경기 포천시에서 개최되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공식 엠블럼과 주제어가 선정·발표됐다. (엠블럼)

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의 엠블럼과 주제어로도 함께 사용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암세포로 암세포 잡는 치료법 개발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 박동식·오도연 교수팀

본인 암세포를 이용해 수술 후 남아 있을 지도 모를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됐다.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 박동식(비뇨기과)·오도연(혈액종양내과)교수팀은 신장암 환자 몸에서 떼낸 암세포에 면역조절물질인 ‘사이토카인’으로 자극,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성질을 바꾼후 이를 다시 환자 몸에 넣어 암세포수술 후 남아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죽일수 있는 백신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1월 신장암 제거 수술을 받은 김모 환자(63)에게 이 같은 치료를 실시한 결과 신장암이 재발되지 않는 것은 물론 폐에 수 침군데 전이된 암세포도 소멸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산초등학교 학부모회 도서바자회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 향상 위한 도서



추산초등학교 학부모회(회장 최두열)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학교 과학실에서 도서바자회를 개최하고 있다. (좌 추산초등학교 학부모회 기념촬영, 우 도서바자회 전경.)

추산초등학교 학부모회(회장 최두열)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학교 과학실에서 도서바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바자회는 단행본 도서바자회로 각 학년별 추천도서 20종씩을 받고 학부모회가 추천한 도서 등

모두 136종의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다.

이번 바자회에 전시되는 학년별 권장도서는 1·2학년의 경우 ▶강아지똥▶과학은술동화▶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등 20종이고 3·4학년은 ▶조금만 조금만 더▶아낌없이 주는 이야기▶집중형 아이 등 모두 20종, 5·6학년은 ▶시베리아 야생동물의 비밀▶지붕위의 푸라마 아저씨▶100년후에도 읽고 싶은 한국명작동시 등 20종이다.

전학년 권장도서로는 ▶Why? 공룡▶Why? 생명과학▶앞서가는 어

이 주는 이야기▶집중형 아이 등 모두 20종, 5·6학년은 ▶시베리아 야생동물의 비밀▶지붕위의 푸라마 아저씨▶100년후에도 읽고 싶은 한국명작동시 등 20종이다.

전학년 권장도서로는 ▶Why? 공룡▶Why? 생명과학▶앞서가는 어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식물기르기 ⑩ - 웰빙식물 딸기

딸기는 불철식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식용으로만 여겨 왔던 딸기는 관상용으로 일가죽이 아름다우나 베란다에 길러 볼만하다. 점차 도시와 되어 가는 요즘엔 예전엔 흔하던 딸기 도 이제는 식물로 인기가 많다.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동부지역이다 남아메리카의 칠레도 딸기로 유명하다 최근 75년 동안 미국이나 일본 등 정부 주도 하에 개량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국내에 들어 온지는 20 세기로 추정되며 기록으로는 1960년대 수원근교에서 대학 1호로 재배한 것이 시초이다.

물론 야생으로 17종이 넘는 산딸기가 우리나라 산과 들에 분포되었지만 상품성재배는 많은 노력 하에 재배능가가 늘어난 것이다.

딸기는 저온에서 도 생육이 양호하며 서늘한 기후를 좋아한다. 겨울을 지나 휴면에서 깨어 봄에는 개

화와 결실을 한다.

여름엔 성장이 촉진되어 번식하는 딸기의 꽃말은 행복함이다 모종을 구입하여 집안에 빈 화분이나 앞뜰에 심어보자 관상용으로 기르면서 꽃이 피어 딸기가 달릴 때 아이들과 관찰기록을 한다면 다기를 여름도 꽃말처럼 행복해 질듯하다.

어린이 하루 필요로 하는 비타민C의 양을 딸기 5~6개 정도면 충분하다. 맛도 좋거나와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 항암작용까지 약용으로도 한류 하는 식물이다.

우리에게 산딸기로 유명한 북분지라하여 약술로도 유명세이다 우리 모두 딸기로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 하면서 꽃말처럼 행복감에 취해보자.



정선교  
주부영역지도사 가스안전부장  
대전대학교 평생교육원  
둘러다니자인 강사

user0316@nate.com